



대행스님

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심의 고뇌에 대해서도 심원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• 보내곳: 우 110-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-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• 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• FAX: (031)470-3116

# 길을 묻는 이에게



법공양 페이지

## “모든 걸 다 아니게 볼 줄 알면 눈귀 열려”

### 대행 스님 독일 에센 대법회 법문



여러분과 한자리를 또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리를 꼭 알아야 하겠으니 여러분도 다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애당초에 조그만 씨앗이 벌어져서 나오듯이, 또 물에서 조그만 생물이 나오듯이, 그렇게 나오는 것이 즉 말하자면 자기의 에너지입니다. 자기의 주인공이라는 에너지입니다.

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입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을 때는 반드시 그 정신계의 자기라는, 그 때 애당초에 태어난 그 존재가 거기에 같이 혼합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정자 남자와 같이 합해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에너지가 뭐냐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. 불성. 그 불성이 즉

###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나

말하자면 에너지로 화해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,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각자, 여러분이 다 자기에너지가 자기한테 있고, 부처님 말씀대로 불성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항상 자기를, 먼저 그 뜻을 알고 거기가 관하라는 얘깁니다. 애당초부터 끝까지 살아나가는 데 일거수 일투족 다 그 자리를 밟고 거기가 뇌야 됩니다. 거기가 밟고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냥 겹겹이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그러니 열심히 관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나 하면은 '당신이 나 아닌 나이니, 내가 아닌 당신이 모든 걸 해 나가니까 당신만이 할 수 있어' 하고 관하라는 말입니다. 여러분의 심장과 소장 대장 눈꺼울 것 없이 모두 떨어져야 되거든요. 눈도 떨어져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, 모두 다 아니게 함유화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다 아니게 되어야만 이 그 때 가서는 현실의 물질적인 나의 모습과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나와 다 아니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.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때는 거칠게 없 그 즉 말하자면 공생이나 공심이나 또 공체나 공용으로 전부 걸림 없이 다 아니게 되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다 아니게 그렇게 완화하게 이 한 도량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

입니다. 한 도량 하면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그 도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은 모두 전체가 다 돌아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.

엇저께 여기 오면 날 막 기침이 나고 그러더니 말이 이렇게 만나오는군요. 죄송합니다. (대중 박수)

그래 죽은 영가도 산 사람도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들로 보지 않는다면은 모두 조상들도 다 한 몸이 돼서 제각기 살게끔 된다는 얘기도, 어디서 죽었거나, 어디서 차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

잘 살 수가 없이 되고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상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깐 문제가 아주 크게 벌어지죠.

여기 독일 분들이 질문해 주십시오. 질문을 해주신다면 말은 잘 못해도 그 뜻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겁니다.

◆사회자: 여러분, 이제 잠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한 두 분의 질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신 분은 무대 앞에 마련된 마이크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▲질문자(통역): 스님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? 부처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?

▲스님: 그건 자기 주인공이라는 정신계의 자기가 있으니까 그걸 꼭 믿고 관하세요. 진짜입니다.

## 에너지가 나오는 자기 불성을 믿고 물질계와 정신계를 하나로 볼때 공체 · 공심 · 공용으로 살 수 있어요

도 그것을 들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도 걸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. 인간이 살면서 잘못 살아나간다면은 누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걸 모르고 마찰이 돼서 거기에 흡수가 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제사 모시는 집을 가도 그렇고요.

반면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돌아 아니게 보고, 아무리 못났어도 못난 부분을 보지 마시고 나와 돌아 아니게 보시구요.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하고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편지를 받게 되고 자기가 나쁘게 돼요. 오늘은 말이 잘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말이 이틀동안 이렇게 나오네요. 얘기를 하는 많은데, 이 독일에 제신 분들은 그 도리를 완전히 모르시더라고요.

조상들이 죽어도 죽은 대로 곱데기만 없어졌다 뿐이지 속의 뜻은 그대로 돌아오고 있거든요. 그 래 거기에 모두 범접을 하고 그러면 식구가 모두

질문자1(통역): 감사합니다.

▲질문자2(통역): 스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법문 해주시면서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저희들이 스스로 뿌린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. 그렇다면은 저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나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뿌리는 도대체 누가 뿌린 것인지요?

▲스님: 그 또한 마찬가지로. 그것이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한테 있는 에너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합니다. 그것을 진짜로 믿고 '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어' 하고 관하시면은 모든 게 다 돌아 아니게 조화가 됩니다.

▲질문자3(통역): 감사합니다 스님.

▲질문자4(통역): 여러 종교를 바라보건대 종교의 원리를 듣고 있자면은 사실 간단한 한 원에서 서로 교차하는 그런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다 보면 여러 종교가 많아서 하다 못해 같은 종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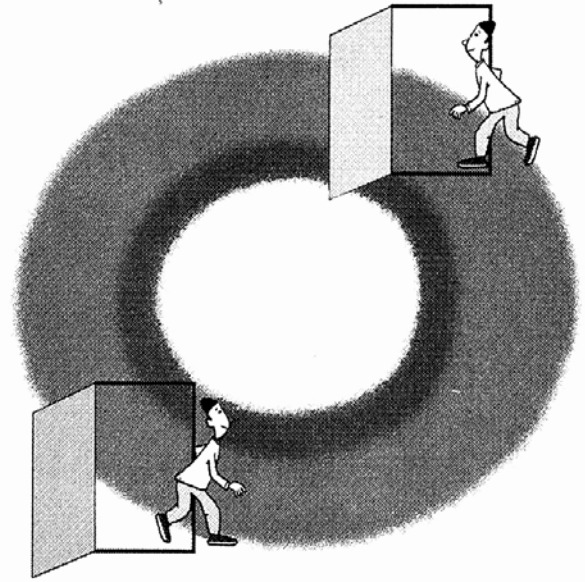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요?

▲스님: 그건 자기가 자기라고 하니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자기 육신이 자기이고, 자기가 모든 일을 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

게 아니고 자꾸 먼 데로 돌아가고 이러니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

▲질문자5(통역): 감사합니다 스님.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여쭙겠습니다. 만약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저희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, 주위의 모든 인연들을 하나로 바라본다면,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같은 것도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?

▲스님: 그렇게만 되면 교통사고도 안 나죠. 왜냐하면은 돌아 아니 까닭에, 돌아 아닌 까닭에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죠. 그러니깐 생각을 한번 잘 해보란 얘깁니다.

### 고기 · 벌레도 똑같은 생명

단정을 지으니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나왔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나왔다가도 재 생이 돼서 다시금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재생이 됩니다. 그러니깐 재생이 되게끔 자기가 모든 걸 하고 가면은 그게 재생이 됩니다. 그렇게 살게끔 되고요. 그리고 돌아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야 할텐데 하나로 돌아가는

20면으로 계속

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

## 성불 조각원

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.

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,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입니다.

※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.

문의

033)263-1102  
H-P 017)379-0590

\* 전국대리점모집 \*



16 나 한

